일본 수도행정의 발전 노력을 보다!

2007년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

우리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제21조 5)에 의해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상수도 분야 리딩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연수는 협회 정도영 부회장을 비롯해 7개 특·광역시의 본부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이 참석,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과 일본에서 진행됐다.

상수도 분야 리더들의 첫 만남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의 첫날 교육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렸다. 우리협회는 '수도사업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번 협회 교육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은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부산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경험과 개량사례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 오존설비에 과산화수소를 활용해 정수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전체토론을 통해 상호간 인사운영에 대한 방향과 사례, 물산업 구조개편 등이 논의됐다.

최대 규모 자랑하는 도쿄道 수도국 방문

둘째 날 참가자 전원은 일본으로 이동해 일본수도협회(JWWA)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수도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민간위탁 및 민영화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튿날에 방문한 도쿄 수도국은 일본에서 최대·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수도사업자이다. 국가가 정한

음용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 도쿄 수도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서비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장기구상'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 중이었다. 한편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수장 및 배급수 시설을 완비하고, 백업망을 구성하는 등 어떠한 사고에도 단수 피해가 없도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도 했다.

도쿄 수도의 핵심시설인 수운용센터는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첨단시설과 철저한 운용계획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선다는 이곳은 이미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다음 날의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일본인 특유의 깐깐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오사카市 수도국의 자구노력

경영위기를 겪은 오사카 수도국은 수돗물의 중요성과 안전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고 경영상태 개선에 힘쓰는 중이었다. 직렬구분을 폐지하고 인건비 삭감, 비주류분야의 민간위탁과 무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재무구조 개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었다.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오사카에서 제작한 수돗물 병물은 그 독특한 색상과 정감어린 명칭이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혼또(정말이다)'의 관서지역 사투리인 '혼마야'라고 부르는 이 병물은 판매 전에 실시한 눈가림 여론조사(Blind test)에서 일반 생수를 능가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수돗물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도기념관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게임과 시뮬레이션 시설, 생태학습장 등을 갖춰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구심점이 되자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가 모두 모여 토의시간을 가졌다. 전 과정을 돌이켜보며 일본 측의 국제규격에 대한 대응방법과 일본수도협회가 제정한 'ISO/TC224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거울삼아, 국내에서도 우리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금번 과정에 참여한 특·광역시 본부장들은 한결같이 이번 과정이 상수도정책 설정 및 경영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우리협회에서는 관리직은 물론 실무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마련, 실제로 회원의 직무향상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